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3년 제81호
2023.11.16.(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전세계】美 샌프란시스코서 APEC 정상회의 개최

【미국】美 하원 특별위, 중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 촉구

【미국·인니】美-인도네시아, 전기차(EV) 관련 핵심광물 조달 협정 논의

주요 산업별 이슈

【전기차】테슬라, 독일서 3천만원대 저렴한 전기차 생산 계획

【전기차】프랑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반도체】美 헬륨 저장시설 매각 결정에 따른 헬륨 가격 상승 우려

주간 이슈 포커스

【미국, 배터리】美 연방정부 배터리 산업 육성 인센티브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

원자재 뉴스 PLUS

【11.2주 원자재 동향】콩고민주공화국, 화물차 파업으로 동·코발트 운송 중단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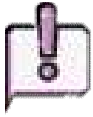
KOTRA, 日 「경제안보법」 추진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 방안

III. 공급망 소식통

KOTRA, 베트남·인니·인도 3개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세미나

한국무역협회,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위기 인식과 대응현황 설문조사 실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전세계

美 샌프란시스코서 APEC 정상회의 개최

- 📍 11.11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美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등에서 개막하여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될 예정
 - » APEC 회의는 11월 21개 회원국의 고위 관료가 참석하는 첫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
 - * 각국의 관료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정상회의의 안건을 점검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의 경우 강재권 韓 외교부 경제조정장관이 참석함
 - » APEC 정상회의는 11.15일~17일(현지시간) 개최되며,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韓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 시진핑 中 국가주석 등 회원국 대부분의 정상들이 참여
 - * 11.15일(현지시간) 바이든 美 대통령과 시진핑 中 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앞서 11.9~10일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과 허리핑 中 국무원 부총리가 만나 안건을 점검한 바 있음
- 📍 또한, 11.16일(현지시간) 윤석열 韓 대통령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과 함께 美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

출처: 연합뉴스('23.11.12), 서울신문('23.11.1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미국

美 하원 특별위, 중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 촉구

- 📍 美 하원 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11.7)에서 中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25%)보다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
 - * 中 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23.1월~9월까지 中 청정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 9월에는 107% 증가
- » 의원들은 계속되는 中 정부의 청정차량 보조금이 美 시장의 中 차량 관세를 상쇄시킬 수 있다며 美 시장 진출에 우려를 표함
- 📍 또한, 멕시코 산업 단지에 대한 수요의 49%가 中 기업인 점을 지목하여 USMCA 등 美 무역 파트너 간 원산지 규정 점검 필요성을 지적함
 - » 한편, 중국의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중 약 100억 달러가 EU로 유입된 것에 대해 최근 EU 집행위는 中 정부의 전기차 산업 보조금 조사를 발표하고, 현행 관세(10%)에 대한 재검토 및 美 유사 수준의 인상을 시사한 바 있음

출처: 폴리τικο('23.11.09)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미국·인니

美-인도네시아, 전기차(EV) 관련 핵심광물 조달 협정 논의

- 주요 외신에 따르면, 11.13일(현지시간) 미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미 백악관에서 만나 전기차(EV) 배터리 핵심광물인 니켈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힘
 - * 배터리 내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3,750달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나, 제한적 광물 FTA 체결로 우회 가능
-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세계에서 니켈 매장량·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희망
- 美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인도네시아 내 니켈 제련소 중 상당수가 중 기업들이 운영·투자하고 있어 협정 체결 시 결국 중 기업들에 IRA 혜택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美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니켈 광물을 가지고 중 기업이 가공한 니켈 제품은 IRA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전함
- 2차전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 韓 기업도 최근 인도네시아에 현지 산업단지 및 광산 등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으로, 이번 광물 협정 체결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출처: 美 백악관('23.11.07), KBS('23.11.1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전기차

테슬라, 독일서 3천만원대 저렴한 전기차 생산 계획

- 1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美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독일에서 2만 5천 유로(약 3,490만 원) 가격대의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
 -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베를린 현지 공장 기가팩토리를 방문하여 해당 계획을 직원들에게 밝혔으나, 생산을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함
 - 해당 가격대로 출시될 경우, 정부 보조금 혜택까지 받아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23년 상반기 유럽의 전기차 평균 소매 가격은 약 6만 5천 유로(약 9,084만 원)이며, 현재 테슬라 주력 차종인 모델3는 독일에서 4만 2,990유로(약 5,990만 원)부터 판매되고 있어 새로 출시할 전기차가 기존 모델3보다 약 30% 이상 저렴할 것으로 예상
-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차 중 가장 저렴한 모델3를 중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의 중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 관련 규제로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해석
- 반면, 독일의 높은 임금*과 에너지 비용으로 생산비용이 높아 저렴한 전기차 생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제기

출처: 로이터통신('23.11.06), 연합뉴스('23.11.07)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전기차

프랑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 10.27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 이행을 위해 '30년까지 5만 개의 고속충전소를 포함하여 총 40만 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전망

* 탄소배출 제로 차량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연료용 충전소 설치 의무화 및 소비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결제 방식 간소화 등 내용을 명시한 규정 ('23.9.13일 관보 게재, '24.4.13일부터 규정 준수 의무화)

- 이들 위해 '24~27년 총 2억 유로(약 2,834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중 6,800만 유로(약 963억 원)는 **고속 및 50kW 이상의 초고속 충전시설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며, 민간 충전소 확대를 위해 가정용 충전소에 300~500유로(약 42만~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전망

- 또한, EU 집행위는 **프랑스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 Verkor社에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여 6억 5,900만 유로(약 9,371억 원)를 지급할 예정

* 프랑스 정부는 민간 투자 8억 5천만 유로, 유럽투자은행(EIB) 대출 6억 유로, 집행위 승인을 받아 직접 보조금 6억 5천만 유로를 Verkor社에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9.14일)

- Verkor社は '26년까지 보조금을 활용하여 △전극·배터리 생산 설비 자동화, △재활용 기술 개발, △대규모 생산라인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

출처: Euractiv('23.10.30), EU 집행위('23.10.30)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반도체

美 헬륨 저장시설 매각 결정에 따른 헬륨 가격 상승 우려

- 11.7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따르면, 지난 10월 **美 압축가스협회(CGA)와 반도체·의료·항공우주 관련 단체는 美 연방정부의 헬륨 저장시설 매각***이 필수적인 헬륨 공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성명 발표

* 미국은 군용 비행선과 각종 연구에 쓰이는 헬륨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스를 비축하고, 100년 가까이 헬륨 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나, '90년대에 들어 저장시설에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헬륨 저장시설 매각도 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24년 초 국토관리국(BLM)이 보유한 텍사스주의 대규모 헬륨 저장시설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

- 과학계가 헬륨 공급의 불안정성을 걱정하는 것은 **헬륨이 연구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으로,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반응성이 낮아 반도체처럼 민감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유용하며, 섭씨 영하 269도까지 냉각할 수 있어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MRI 장비 내부에 초전도체를 냉각하는 데 활용**

- 헬륨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카타르·알제리·러시아 4개국 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학계는 연구에 필요한 헬륨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나, 일각에서는 몇 년 안에 헬륨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고급 헬륨 가격은 '00년 1㎡당 1달러에서 '20년 11달러로 상승하면서 20년 새 11배 가격이 상승한 바 있음

출처: 사이언스('23.11.06), 조선비즈('23.11.0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미국, 배터리 美 연방정부 배터리 산업 육성 인센티브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

美 바이든 정부는 자국 배터리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속화

» 美 에너지부는 친환경 전기차 전환을 위해 155억 달러 예산 지원 패키지* 공개('23.8.31)

* 120억 달러는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연료 지원 예산이며, 35억 달러는 배터리 핵심 광물 및 제조·재활용 지원 보조금으로 투입

» 美 연방정부의 배터리 공급망 확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크게 ① 기업 등에 무상 제공하는 보조금, ② 대출 및 신용보증, ③ 연방 법인 세액 공제 3가지로 분류

美 전기차 시장 확대와 정부 지원에 힘입어 미국 내 배터리 관련 투자 호황

» '19년까지 단 2개에 불과했던 미국 내 배터리 제조 시설은 '23.8월 기준 29개까지 증가 (건설 및 발표 포함)

» 특히,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美 국내외 배터리 전문 업체와의 합작 투자를 진행중이며, 韓·日·中 등 해외 배터리 기업 진출 가속화

美 연방 배터리 지원 인센티브 동향

구분	주요 내용												
①보조금	▶ '21년도에 제정된 '인프라 투자·고용법'에 의거, 에너지부 산하 MESC(Office of Manufacturing and Energy Supply Chains)가 지원 정책 주관												
	- 美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5년간 총 60억 달러 무상 보조금을 지급하며, 분야별 연간 6억 달러씩 각각 총 30억 달러 무상 보조금 지급 ('22~26년 동안)												
	* 에너지부 보조금 수혜 분야는 ① 배터리 소재 처리, ② 배터리 제조 및 리사이클 분야로 구분												
	<table><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tr><td>1차</td><td>▶ MESC는 '22.10월 배터리 소재 처리 분야에서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총 28억 달러 보조금 지급 결정</td></tr><tr><td></td><td>- 이는 전체 60억 달러 보조금 예산 중 1단계(first phase)로, 배터리 소재 처리 관련 프로젝트 및 시범사업 지원에 집중</td></tr><tr><td>2차</td><td>▶ MESC는 '23.8.31일에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분야 지원사업 예비 공지</td></tr><tr><td></td><td>- 2차 라운드에서 총지원 금액은 35억 달러, 수혜 프로젝트는 19~41개 예상, 사업 기간은 40~46개월</td></tr><tr><td></td><td>- 4분기 중으로 정식 보조금 신청 공지 예정</td></tr></table>	구분	주요 내용	1차	▶ MESC는 '22.10월 배터리 소재 처리 분야에서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총 28억 달러 보조금 지급 결정		- 이는 전체 60억 달러 보조금 예산 중 1단계(first phase)로, 배터리 소재 처리 관련 프로젝트 및 시범사업 지원에 집중	2차	▶ MESC는 '23.8.31일에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분야 지원사업 예비 공지		- 2차 라운드에서 총지원 금액은 35억 달러, 수혜 프로젝트는 19~41개 예상, 사업 기간은 40~46개월		- 4분기 중으로 정식 보조금 신청 공지 예정
구분	주요 내용												
1차	▶ MESC는 '22.10월 배터리 소재 처리 분야에서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총 28억 달러 보조금 지급 결정												
	- 이는 전체 60억 달러 보조금 예산 중 1단계(first phase)로, 배터리 소재 처리 관련 프로젝트 및 시범사업 지원에 집중												
2차	▶ MESC는 '23.8.31일에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분야 지원사업 예비 공지												
	- 2차 라운드에서 총지원 금액은 35억 달러, 수혜 프로젝트는 19~41개 예상, 사업 기간은 40~46개월												
	- 4분기 중으로 정식 보조금 신청 공지 예정												
②대출 및 신용보증	▶ 에너지부 산하 Loan Programs Office(LPO)가 사업을 주관하며, 지원 분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차·부품(배터리) 등에 집중												
	- 신청은 LPO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수시 접수												
	- LPO 대출심사는 ① 사전신청 → ② 신청서 리뷰 → ③ Due Diligence → ④ 조건부 승인 → ⑤ 최종 승인 → ⑥ 후속 감독 순 진행												
③연방 법인 세액공제	▶ 셀 생산 kWh당 35달러, 모듈 생산 kWh당 10달러를 법인 세액에서 감감												
	▶ 세부 시행 지침은 올해 말까지 재무부가 공개할 예정												

출처: 경제통상 리포트('23.11.09)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희소금속

콩고민주공화국, 화물차 파업으로 동·코발트 운송 중단

세계 1위 코발트 생산국이자 3위 동 생산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의 화물운송 파업으로 동·코발트 운송 중단

- 10월 말부터 시작된 파업은 트럭 2,700여대가 참여해 동 89,000톤 가량이 정체된 상황이며, Kamoa Kakula 광산, Tenke Fungurme 광산, Kamoto 광산, Mashamba West 광산 등이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트럭 운전수들은 700달러의 위험수당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출처: 로이터통신('23.11.07)]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2주)

◆ [비철금속] 中 경기둔화 우려, 美 달러 가치 하락으로 가격 하락세이나 일부 광종 하방압력 상쇄요인 상존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10월	전년비(%)	11.1주	11.2주	전주비(%)
동	8,797	8,523	△3.1	8,065	8,066	0.0
니켈	25,605	22,694	△11.4	18,130	17,627	△2.8
아연	3,478	2,674	△23.1	2,477	2,576	4.0

* 자료원: LME

❖ (동) 中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美 달러 가치 하락 및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 수출차질 이슈로 전기동 가격은 전주대비 보합세

- » 세계 동 광산생산 3위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C)은 10월 말부터 시작된 화물운송 파업으로 Kamoa-Kakula 등 주요 동-코발트 광산의 정광운송이 중단되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 (니켈) 中 경기지표 부진 및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니켈 가격은 전주대비 2.8% 하락세, 연초대비 39.8% 하락

- » 다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니켈원광 생산쿼터의 신규발급 지연 및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 감소세로 상기 하방압력이 부분 상쇄될 것으로 분석

◆ [철강] 자동차 생산확대 및 철강부문 환경규제 완화로 인해 철광석 가격↑, 유가 하락으로 연료탄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10월	전년비(%)	11.1주	11.2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81.95	△47.8	128.39	126.20	△1.7
원료탄	364.99	289.65	△20.6	349.70	316.40	△9.5
철광석	120.26	116.15	△3.4	124.65	126.99	1.9

* 자료원: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 (철광석) 中 경기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확대 및 철강부문의 환경규제 완화로 고로 사용률이 확대되면서 철광석 가격상승압력 발생

❖ (유연탄) 11.2주차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77.17달러로 전주대비 4.2% 하락하며 3주연속 하락한 가운데 계절성 수요 둔화로 연료탄 가격은 전주대비 1.7% 하락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2주)

◆ [희소금속] 항공부문의 확고한 수요로 코발트 가격 소폭 상승, 이외 광종은 가격 하락세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2년	'23.10월	전년비(%)	11.1주	11.2주	전주비(%)
페로망간	1,551	1,290	△16.9	1,185	1,185	-
탄산리튬	72,290	39,844	△44.9	22,281	21,160	△5.0
수산화리튬	67,180	42,343	△37.0	19,852	18,914	△4.7
코발트	31.20	17.91	△42.6	18.05	18.24	1.1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80,494	322,038	△15.4	363,300	362,100	△0.3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133,607	80,588	△39.7	72,000	71,720	△0.4

* 자료원: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中 내수가 및 수출가 변동은 없으며, 주요 생산업체들은 철강사의 향후 생산 및 원료구매 향방 주시
-  **(탄산리튬)** 연말 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생산재고 감축에 나서며 양극재 발주량을 줄여 탄산리튬 등 수요 감소
 - » 中 주요 수산화리튬 생산업체는 현재 생산 재고가 많은 상황으로 빠른 판매를 통한 재고 소진이 필요하며, 원료 스포듀민 가격도 동반 하락세
-  **(코발트)** 유럽 Alloy 등급 제품가는 美 항공 부문의 높은 수요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Chemical 등급 제품가는 하향세로 괴리 발생
 - » 中 코발트 금속가는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압력이 지속되며, 차년도 추가적인 공급원이 늘어날 전망
-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의 수요 부진이 이어지며, 관련 품목 주간가격 소폭 하락
 - » 산화세륨은 제한된 수요에도 주요 공급업체들의 판매 보류 기조를 유지하며 판매가를 인상

◆ [에너지] 中 경제지표 부진, 美 추가 긴축 가능성 등으로 유가 하락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년	'23.10월	전월비 등락폭	11.1주	11.2주	전주비 등락폭
두바이유	96.41	87.75	-3.50	87.87	83.52	-4.35
브랜트유	99.04	88.70	-3.88	86.25	77.29	-4.69
WTI	94.33	85.47	-3.96	81.35	83.53	-4.06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국제 유가)** ▲中 경제지표 부진, ▲美 추가 긴축 가능성, ▲투기자금 순매수 포지션 감소 및 中 정제 처리량 감소 예상, ▲중동 석유 공급 차질 우려 완화와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 증가 가능성 등으로 유가 하락



공급망 더 알아보기

日 「경제안보법」 추진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 방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KOTRA 도쿄무역관, 경제통상 리포트('23.10.31)

'22.5월 日 정부는 「경제안보법」을 제정하고, 이후 부처별로 액션플랜을 정비하고 개정안 입법 추진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자율성과 불가결성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3P(Promote, Protect, Partnership) 액션플랜을 구상하는 등 노력을 하고있는 바, 아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자.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추진 동향

- ▶ '22.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은 크게 4가지 경제 시책을 담고 있으며, 공포 후 2년 내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

〈日 경제안보법의 경제 시책과 시행 시점〉

구분	주요 내용	시행시기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인화	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 계획 승인 및 지원조치	既시행
첨단 중요기술 개발 지원	첨단 중요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자금 지원 민-관 협의회 설치, 연구업무 위탁 싱크탱크 설치	
기간 인프라 사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중요 기간 인프라 도입 및 유지관리 등 위탁에 대한 사전 심사, 권고/명령 등 조치	시행 예정 ('24년 봄 예정)
특허출원 비공개	군사적 이용 가능한 민간특허 비공개, 외국출원 제한	

* 자료: 日 내각부

- ▶ 경제안보법 제정 이후 일본 내 각 정부 부처들은 정령(政令) 등을 통해 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비 중
 - 특히, 日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제고하는 액션플랜으로 Promote(산업지원책), Protect(산업방위책), Partnership(국제공조)를 구상
- ▶ 이에 따라 특정 중요물자 추가 지정, 중요 기간 인프라 사전심사 대상 확대, 보안적격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법 개정이 '24년 봄에 추진될 전망

📌 3P 액션플랜에 따른 고도화

① Promote (산업지원책)

- ▶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
 - ❶중요물자의 日 국내 생산인프라 확충, ❷특정 중요물자 대상 추가 지정, ❸글로벌사우스* 전략 본격화 등 정책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도모

*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

〈Promote(산업지원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국내 생산시설 확충	» 日 제조기업의 국내 복귀와 글로벌 기업 유치에 총력 - 엔화 약세, 신흥국 임금인상 등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외부 리스크를 줄이려는 日 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세제 혜택 등으로 국내 복귀(리쇼어링) 유도 * 日 국내 생산설비 투자 사례: 스바루(자동차), TDK(전자제품), KANEKA(의료기기), 캐논(전자기기), 르네사스(반도체) 등 » 반도체의 경우, 美·대만·네덜란드 등 우방국 기업들이 일본 내에 생산기반을 건설·운영 하도록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토지 규제 등을 시정 * 日 첨단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사례: TSMC(대만), 라피더스(일본), MICRON(미국), 이비덴(일본) 등
②특정 중요물자 추가 지정	» 日 정부와 자민당은 '신규 중요물자 후보군'을 발굴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특정 중요물자로 추가 지정 검토 - 기존 11개 중요물자에 1개 물자를 추가하고, 기존 지정물자 내 세부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11월 「새로운 경제대책」 발표에 맞춰 검토할 예정 - 대부분 中 수출규제 대상이거나, 자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의도로 분석
③글로벌사우스 전략 본격화	»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日 내각관방은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협력 강화 추진회의」를 설치(10.17일), 정책대화 강화, 오퍼형 ODA 추진, 日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등 방안 협의 진행 - 특히, 인도·칠레·인니·케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초청하여 강인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단결을 강조

※ [참고] 특정 중요물자 추가 지정(안)

* 자료: 일본경제신문(10.12일)

구분	주요 내용
특정 중요물자 추가	» '첨단전자부품' 추가: 적층 세라믹콘덴서(MLCC)* 등 포함 예상 * 자율주행, IoT, 5G 등 미래산업의 필수 부품
기존 중요물자 내 세부품목 추가	» 5개 중요물자의 세부품목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중요광물) 우라늄, 갈륨, 게르마늄 / (배터리) 배터리제조장치 - (반도체) 제조장치 및 부품 등 공급망 후방산업의 중요부품 및 소재 - (기계·로봇) 대형주물 대체부품, 볼스크류, 리니어가이드 등 - (항공기부품) 주조품, 티타늄스편지

② Protect (산업방위책)

- ▶ 전략적 불가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기술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보장 능력을 강화
- ①기간 인프라 사업의 사전심사 대상분야 추가, ②첨단 기술 연구개발 대상 및 지원 확대 대상 추가 지정, ③보안적격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

〈Protect(산업방위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사전심사 대상 추가	» 안정적 기간 인프라 사업 제공에 관한 보안대상 확대 - 중요설비 도입과 유지·관리 등을 외부기업에 위탁할 경우, 日 정부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기간 인프라 대상을 기존 14개→16개*로 확대 추진 * 사전심사 대상 인프라 분야: 전기, 철도, 공항운영, 금융, 가스, 화물자동차 운송, 전기통신, 신용카드, 석유정제 수입, 외항화물, 방송, 수도사업 공급, 항공운송, 우편, <u>항만(추가)</u>, <u>의료(추가)</u> » 중요 기간 인프라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외국산 장비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제고를 심사 중점 요소로 설정 (사전심사제도 '24.3월 시행 목표) * 설비 제조국가 혹은 공급자 명칭 및 주소, 해당기업 임직원의 성명과 국적 등 사전신고 의무화
②연구개발 대상·지원 확대	»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연구분야 확대 - 「제1차 연구개발 비전」으로 既지정한 27개 첨단기술에 더해 항공·우주, 사이버, 바이오 등 23개 기술을 '중점 육성지원 연구기술'로 추가 지정 - 이와 함께 연구개발-기술실증 추진을 위한 최대 1,550억 엔 지원 추진
③보안적격성 평가 도입	» 사이버 보안 및 공급망 관련 기밀정보 보안 강화 - 경제안보상, '24년 봄까지 美·EU와 비슷한 수준의 제도 입법 추진을 목표 - 日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이버위협·대책, 규제심사, 조사·분석·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4가지 관련정보를 기밀 대상 정보로 제시

※ [참고]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K Program) 주요 대상 분야

* 자료: 日 내각관방

제1차 연구개발 비전 ('22.9월)		제2차 연구개발 비전 ('23.8월)	
분야	내용	분야	내용
해양	자율형 무인탐사기 성능 향상	항공·우주	위성 수명연장을 위한 연료보급기술
	양자기술 등을 통한 바닷속 고정밀 항법		장거리 수송용 무인항공기 기술개발, 실증
	해저공간 관측 기술 및 데이터 처리		초고분해능 상시 관측 광학 안테나 기술
항공·우주	저궤도 위성간 광통신 기술	사이버	사이버 보안 기능 분석 능력 강화
	장거리 비행 가능한 소형무인기 기술		가짜뉴스 분석 관련 기술 개발
	디지털 기술을 통한 항공기제조 고도화		차세대 반도체 미세가공 프로세스 기술
사이버	AI 보안에 관한 지식 기술 체계		극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이차전지 기술
바이오	생체분자 시퀀스 등 연구분석 기술	바이오	지혈제 제조기술 개발 및 실증

③ Partnership (국제공조)

▶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기반으로 특정국가의 경제적 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자간·다자간 협력 틀을 구축

- (美-日 2+2 경제대화) 양국 외교·상무장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22년부터 연례 개최*, IPEF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기술 발전, 경제적 위압 대응 등 논의

*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美-日 2+2 경제대화 일정 조정중(10.30일, 요미우리 신문)

- (EU-日 고위급경제대화) '18년부터 4차례 고위급경제대화(HLED) 개최, /자유무역·디지털 교역·경제안보

등 국제무역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 논의

* G7 무역장관회의를 계기로 EU-日 고위급경제대화 개최(10.28일, 요미우리 신문)

• **(다자간 협력)** WTO·G7·IPEF 등 국제협력 틀을 활용해 경제안보 제고

* (WTO) 日, 中·러시아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중단에 '협정 위반, 철회' 요구

* (G7) 경제적 위압에 대응하는 조정플랫폼 구축, 경제적 위압을 억제하고 피해국 지원에 합의

* (IPEF) 글로벌사우스와의 연대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특정국 의존도 축소 노력 강구

▶ 이와 함께, 경제적 위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NEXI(일본무역보험) 등을 활용한 기업 지원 강화 검토

• **(JETFO)** 상담창구 개설, 경제적 위압에 대한 기업지원 대응기관 혹은 지원 제도 등 소개, 대체시장 개척, 중소·중견 대상 전문가 파견

• **(NEXI)** JETRO 등과 제휴해 무역보험 활용 홍보(판로 개척 시 리스크를 보험으로 커버), 우방국 수출신용 기관과의 제휴 검토

향후 전망

▶ 日 정부는 「'24년도 예산안」과 「새로운 경제대책」을 통해 일본에 투자하는 첨단기술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 중

• 또한, 경제안보법 개정안 준비를 통해 첨단기술에 대한 제3국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기밀 누출에 대한 규제 강화 추진

▶ 日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전기차 부문 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해 美·EU·日 3국 공통안 마련을 추진하고, 연내 美·EU 고위급대화를 추진할 예정

3P 액션플랜에 따른 대응방안

구분	주요 내용
산업지원책 (Promote)	▶ 日 생산 인프라 확충 기조를 對日 진출 기회로 활용,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될 전망 - 日 기업들은 제조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Made in Japan의 가격경쟁력·안정성·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 - 디지털 유지보수 서비스, 스마트팩토리 패키지(S/W솔루션+기자재) 수출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인재·IoT·보안 부문의 한-일 간 협력 가능
산업방위책 (Protect)	▶ 인프라 사업자와의 빠른 관계 구축을 통한 분야별 이니셔티브 선점 - 경제안보법에 의거해 각 정부 부처는 '기간 인프라 관련 사업자 후보'를 공표하고, 해당 사업자는 향후 설비도입을 위한 조달 입찰 과정에서부터 장비 제조사 등에 관한 日 정부의 사전심사와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
국제 공조 (Partnership)	▶ 美·EU 등 공조를 통한 日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 예의주시 - 향후 美-EU-日의 공동 가이드라인 도출 과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日 수혜기업과의 협업 등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공급망 소식통

베트남·인나·인도 3개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세미나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PARTNERSHIP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인나·인도 3개국 글로벌 공급망재편 대응세미나

| 2023. 11. 23(목) 14:00-17:40
KOTRA 본사(양재) B1 국제회의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논의 관련
동상 및 경영환경 변화 대응전략 및 현장 비즈니스 정보 제공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 개회사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14:05~14:30(25')	■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 및 공급망 관련 기업 사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허난이 박사
	14:30~15:00(30')	■ 인태지역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	산업연구원 양주영 박사
	15:00~15:40(40')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도네시아 산업고도화 전략	KOTR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이효연 운영팀장
	15:40~15:50(10')	Coffee Break	
	15:50~16:30(40')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인도의 제조업 육성전략 : 현황과 과제	KOTRA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이정선 운영팀장
	16:30~17:10(40')	■ 공급망 재편 시대, 베트남의 현황과 대응방안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이연주 운영팀장
	17:10~17:40(30')	■ 국가별(베트남·인나·인도), 분야별(투자진출 및 M&A) 1:1 상담회 (사전 신청기업 대상)	

■ 신청 기한 : 2023. 11. 21(화)까지

■ 신청 방법 : ① 우측 참가신청 버튼 클릭
② QR코드 스캔

※ 1:1 상담회의 경우 선착순 마감 가능

문의처 : KOTRA 경제협력지원팀

02-3460-3275 | diplomacy2@kotra.or.kr

참가신청

클릭 시 신청페이지 이동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위기 인식과 대응현황 설문조사 실시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위기 인식과 대응현황 설문조사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과 대응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원자재 가격상승, 각종 환경 규제 등
계속되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 변화를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설문은 몇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성실히 응답해주신 **100분께 커피 쿠폰**을 제공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개요>

- 설문목적: 국내 기업의 공급망위기 인식 및 대응현황 조사
- 설문대상: 기업체 소속 임직원
- 설문기간: 2023.11.07 - 2023.11.20
- 문의: 코리아리서치 최지혜 책임연구원 (☎ 010-6240-9420)



QR코드

설문조사 QR코드 또는 하단 URL 링크로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URL링크 (👉바로가기)

글로벌 경제지표 (23.11.14.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10말	11/10	11/13	11/14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264.50	1,350.50	1,316.80	1,325.10	1,328.90	0.29%	5.09%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348.60	1,314.90	1,323.20	1,327.10	0.29%	4.88%
₩/CNY	186.51	181.44	184.60	179.36	180.30	181.20	0.50%	△0.13%
₩/¥100	1,032.48	945.56	899.73	869.92	873.27	876.01	0.31%	△7.36%
Y/US\$	115.14	133.73	150.10	151.37	151.74	151.70	△0.03%	13.44%
US\$/EUR	1.1318	1.0617	1.0604	1.0665	1.0687	1.0695	0.07%	0.73%
CNY/US\$	6.3681	6.9630	7.3168	7.2925	7.2971	7.2947	△0.03%	4.76%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306.5 (₩/¥100) 937.4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11.13(전일)	'23.11.14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81.62	83.35	1.7 2.1%	11.5 16.0%	4.6 5.8%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9.80	130.20	0.4 0.3%	50.7 63.8%	12.9 11.0%
비철 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014.50	8,081.00	66.5 0.8%	1081.0 15.4%	△306.0 △3.6%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220.50	2,194.00	△26.5 △1.2%	114.0 5.5%	△166.5 △7.1%
	니켈	19,100.00(7.5일)	30,425.00	17,000.00	17,005.00	5.0 0.0%	△2095.0 △11.0%	△13420.0 △44.1%

반도체

	'21	'22	'23.8월	'23.9월	'23.10월	11/9	11/10	11/13	11월(~13)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3.99 29.9%	3.07 △23.0%	1.46 △47.2	1.48 △41.3	1.55 △35.6	1.63 △24.1	1.64 △22.8	1.65 △22.2	1.62 △24.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6.55 14.7%	7.25 10.7%	6.32 △3.8	6.32 △3.8	6.40 △2.6	6.42 △1.5	6.42 △1.5	6.42 △1.5	6.42 △1.6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10.20	10.27	11.3	11.10	전주비(10.20)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17.66	1012.6	1067.88	1030.24	△3.5%	△7.0%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11.8	11.9	11.10	11.13	11.14	전일비(10.30)	'22년말비
BDI	2217	1515	1530	1598	1643	1655	1662	0.4%	9.7%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moaform.com/q/lflGnB>



피드백하러 가기

<https://moaform.com/q/MvDmch>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기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